

Original Article

Open Access

## 치매 예방 프로그램 현황 및 분석 -주요 5개 도시 중심으로-

고현익 · 이수빈 · 이자연 · 이재은 · 이혜연 · 조은영 · 최하은 · 정현애†  
동신대학교 작업치료학과

### Analysis and Current State of Dementia Prevention Program -Focused on Five Major Cities-

Hyun-Ik Ko · Su-Bin Lee · Ja-Yeon Lee · Che-En Lee · Hye-Yeon Lee ·  
En-Yong Cho · Ha-En Choi · Hyun-Ae Chung†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Dong-Shin University*

Received: May 22, 2017 / Revised: June 13, 2017 / Accepted: June 21, 2017

© 2017 Journal of Korea 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 Abstract |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status of the dementia prevention programs, dementia support centers, and elderly welfare centers in major metropolitan cities to acquire data for future program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and the specialization of dementia prevention personnel.

**Methods:** Data were gathered through internet surveys and telephone questionnaires from 15 special demented elderly care centers and elderly welfare centers registered in five metropolitan cities from June 27 to Oct 25, 2016.

**Results:** Dementia care programs were available at 15 centers. Seoul City was running the most diverse dementia programs, and all five cities were spending a significant amount of time on the cognitive therapy program within several dementia programs. In addition, many social workers hosted the program and the frequency of social welfare work was three times a week.

**Conclusion:** To increase the dementia prevention policies' efficiency, an understanding of dementia has already been established. Experts who can provide client-centered, problem-solving programs will play the role of physical therapists and occupational therapists. However, more research is needed.

**Key Words:** Dementia, Dementia Preventive Program, Presenter

†Corresponding Author : Hyun-Ae Chung (cjc816@naver.com)

## I. 서론

오늘날 인간의 생활수준 향상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의 평균수명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Nam et al., 2013)이며 2015년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3.1%로 10년 전 보다 약 200만명 증가한 662만 4천명이며, 2060년에는 40%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5).

노인인구의 급증현상은 치매 유병율의 급격한 상승세를 가져와 치매환자의 급증에 따른 심각한 사회 문제가 예상되고 있다(Sung & Kim, 2011). 2014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9.6%, 61.2만 명으로 추산되며 2050년에는 약 271만 명으로 전체 노인의 1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

치매는 노인에게 흔한 질병으로 요양기간이 길게는 수년이 걸리고 치매노인의 일상적 활동도 방해한다. 이처럼 치매환자는 극심한 정신적인 장애와 함께 흔히 신체적인 장애까지 겹쳐져 다루기가 어렵고 사물을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생활할 능력을 못가지기 때문에 간호와 부양에 어려움이 심각하다(Song, 2006). 노년기의 치매는 노인의 인지 기능 감소, 우울증상을 초래하고 뇌혈관 질환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Yu, 2013).

예방 관리를 할 경우 치매 유병률은 감소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Seoul Metropolitan Center for Dementia, 2015). 지역사회 노인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대부분 70, 80대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The Seoul Institute, 2012), 치매관련 프로그램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경로당을 포함한 지역기반의 노인대상 시설을 이용한 치매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Park et al., 2015).

이에, 서울시에서는 급격한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증가하는 치매환자와 치매로 인한 가족의 부양부

담 증가를 예상하며 단순 시설 보호 차원의 접근을 넘어 사회적 차원에서 치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예방, 조기진단 및 치료, 진행 단계별 적정 서비스 제공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치매 통합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고(Lee, 2007), 2006년 치매관리 사업을 총괄·기획·지원하는 기구인 광역치매센터를 설치하였으며, 2007년~2009년 순차적으로 25개 자치구에 치매관리사업 실행기구인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Seoul Metropolitan Center for Dementia, 2014).

보건복지가족부가 실시한 2011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치매조기검진서비스의 인지도가 높은 편이나 치매예방프로그램의 인지도는 낮은 편이다(Im, 2012). 따라서, 노인의 치매예방 및 조기검진 프로그램 참여 실태와 관련 요인을 파악하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하나 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광역시의 치매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는 향후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위한 기초자료와 치매예방 인력의 전문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치매예방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중앙 치매센터에 등록되어있는 기관을 근거로 하여 현재 5개 주요 광역시(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광역치매센터를 대상으로 하였다.

### 2.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2016년 6월 27일부터 10월 25일까지 광역치매센터에 등록된 주요 광역시(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의

Table 1. Program of contents for the prevention of social welfare for senior citizens

	Cog Tx	Occ Tx	Exer Tx	Mus Tx	Art Tx	Laugh Tx	Remi Tx	Hort Tx	Total
Seoul	13	8	10	8	9	7	6	4	65
Daejeon	8	4	7	5	6	2	4	3	39
Daegu	9	5	9	4	6	1	1	2	37
Busan	12	7	8	7	10	4	5	3	56
Gwangju	10	2	4	2	7	1	3	2	31
Total	52	26	38	26	38	15	19	14	

Cog Tx=cognitive Therapy, Occ Tx=Occupational Therapy, Exer Tx=Eercise Therapy, Mus Tx=Music Therapy, Remi Tx=Reminiscence Therapy, Laugh Tx= Laughter Therapy , Hort Tx=Horticultural Therapy.

치매예방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총 75개의 노인복지관과 64개의 광역치매센터를 선정하여 인터넷 조사와 전화설문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각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치매예방 프로그램에 진행자와 프로그램, 진행빈도를 정확하게 명시한 경우만 인정하였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치매예방을 위한 주요 5개 도시의, 지역별 15개 기관씩 총 75개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진행자, 프로그램 진행빈도로 나누어 비교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지역별 노인 복지관의 일반적 치매예방 프로그램 현황

1) 지역별 노인복지관 치매예방 프로그램 내용  
 주요 5개 도시의 각 15개 노인복지관 중,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의 지역별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는 지역별로 총 8개의 치매예방 프로그램 내용의 범주로 구분되었다. 대부분 지역의 노인복지관에서는 다양한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그중, ‘서울시’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가장 많았으며, ‘광주시’가 치매예방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프로그램은 ‘인지치료’ 프로그램이 52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원예치료’ 프로그램이 14곳으로 가장 적은

Table 2. Program presenter in senior welfare center for elderly by region

	Occ Ther	Socl Wor	Recre uct	Mus Ther	Art Ther	Laugh Ther	Hort Ther	Care Wor	Total
Seoul	6	15	5	7	5	6	3	13	60
Daejeon	4	11	2	3	4	2	1	10	37
Daegu	3	13	1	2	1	-	1	10	31
Busan	5	12	1	3	2	1	2	12	38
Gwangju	1	11	2	1	-	-	-	8	23
Total	19	62	11	16	12	9	7	53	

Occ Ther=Occupational Therapist, Soci Wor=Social Worker, Recre uct=Recreation Instructor, , Mus Ther=Music Therapist, Art Ther=Art Therapist, Laugh Ther= Laughter Therapist , Hort Ther =Horticultural Therapist, Care Wor=Care Worker

Table 3. Program frequency in senior welfare center for elderly by region

	1/w	2/w	3/w	4/w	5/w	6/w	Total
Seoul	2	2	6	-	4	1	15
Daejeon	2	4	5	1	3	-	15
Daegu	2	3	5	1	2	2	15
Busan	1	3	5	2	3	1	15
Gwangju	2	5	5	1	1	1	15
Total	9	17	26	5	13	5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1).

## 2) 지역별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진행자

주요 5개 도시의 각 15개 노인복지관 중,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의 프로그램 진행자를 분석한 결과는 지역별로 총 8개의 프로그램 진행자의 빈도 범주로 구분되었다. 대부분 지역의 노인복지관에서는 다양한 진행자가 있었으며, 그중, '서울시'가 치매예방 프로그램 진행자가 다양한 곳이 가장 많았고, '광주시'가 치매예방 프로그램 진행자가 다양한 곳이 가장 적었다. 프로그램 진행자별로는 '사회복지사'가 62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원예치료사'가 7곳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2).

## 3) 지역별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진행 빈도

주요 5개 도시의 각 15개 노인복지관 중,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의 교육 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기관별로 총 6개의 진행 빈도 범주로 구분되

었다. 진행 빈도는 주 '3회'가 26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4회'와 '주6회'가 5곳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3).

## 2. 지역별 치매지원센터의 일반적 치매예방 프로그램 현황

본 연구에서는 치매예방을 위한 주요 5개 도시의 치매지원센터에서 주관하고 있는 치매예방 프로그램의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서울시 25곳, 대전시 6곳, 대구시 10곳, 부산시 18곳, 광주시 5곳의 각 센터별 치매예방 프로그램의 현황을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진행자, 프로그램 진행 빈도로 나누어 살펴보고, 다시 종합적으로 센터별 치매예방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현황을 재분석 하였다.

### 1) 지역별 치매지원센터 프로그램 내용

주요 5개 도시의 64곳 치매지원센터 중,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의 총 48곳의 센터별

Table 4. Program contents of dementia support center by region

	Cog Tx	Occ Tx	Exer Tx	Mus Tx	Art Tx	Laugh Tx	Remi Tx	Hort Tx	Total
Seoul	14	13	20	13	9	1	2	2	74
Daejeon	3	-	-	-	5	-	-	5	13
Daegu	3	1	3	4	4	-	5	3	23
Busan	9	2	4	2	1	1	3	-	22
Gwangju	1	-	2	2	1	-	2	-	8
Total	30	16	29	23	20	2	12	8	

Cog Tx=cognitive Therapy, Occ Tx=Occupational Therapy, Exer Tx=Eercise Therapy, Mus Tx=Music Therapy, Remi Tx=Reminiscence Therapy, Laugh Tx= Laughter Therapy, Hort Tx=Horticultural Therapy.

Table 5. Program presenter in dementia support center for elderly by region

	Occ Ther	Soci Wor	Mus Ther	Art Ther	Laugh Ther	Exe Ther	Hort Ther	Etc	Total
Seoul	20	5	8	4	2	14	1	2	56
Daejeon	1	3	-	5	3	-	-	2	15
Daegu	1	3	3	-	2	1	-	2	12
Busan	2	8	-	-	-	1	-	5	16
Gwangju	-	2	1	1	-	2	1	1	8
Total	24	21	12	10	7	18	2	12	

Occ Ther=Occupational Therapist, Soci Wor=Social Worker, Mus Ther=Music Therapist, Art Ther=Art Therapist, Laugh Ther=Laughter Therapist, Exe Ther=Exercise Therapist, Hort Ther =Horticultural Therapist, Care Wor=Care Worker

치매예방 프로그램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지역별로 총 8개의 치매예방 프로그램 내용 범주로 구분되었다. ‘서울시’, ‘대구시’, ‘부산시’는 대부분 다양한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그에 비해 ‘대전시’와 ‘광주시’는 치매예방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프로그램별로는 ‘인지치료’ 프로그램이 30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회상치료’ 프로그램이 2곳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4).

## 2) 지역별 치매지원센터 프로그램 진행자

주요 5개 도시의 64곳 치매지원센터 중,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 총 48곳의 센터별 프로그램 진행자를 분석한 결과는 지역별로 총 8개의 치매예방 프로그램 진행자로 구분되었다. 프로그램 진행자는 ‘작업치료사’가 24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원예치료사’가 2곳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5).

## 3) 지역별 치매지원센터 프로그램 진행 빈도

주요 5개 도시의 64곳 치매지원센터 중,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 총 48곳의 센터별 교육 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지역별로 총 6개의 치매예방 진행 빈도 범주로 구분되었다. 진행 빈도는 ‘주1회’가 18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6회’가 1곳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6).

## IV. 고 찰

현재 국가에서는 치매예방, 조기진단과 치료를 위하여 체계적인 치매관리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각 주요 광역시 치매지원센터의 치매예방프로그램 현황 및 노인복지관의 치매예방프로그램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향후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위한 기초자료와 치매예방 인력의 전문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5대 도시 노인복지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치매예방

Table 6. Program frequency in dementia support center for elderly by region

	1/w	2/w	3/w	4/w	5/w	6/w	Total
Seoul	6	5	6	5	3	-	25
Daejeon	2	-	3	-	-	-	5
Daegu	3	-	-	1	-	1	5
Busan	6	1	-	2	1	-	10
Gwangju	1	-	1	-	1	-	3
Total	18	6	10	8	5	1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가 가장 다양한 치매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고, 여러 치매프로그램들 중 '인지치료' 프로그램에 5대 도시 모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또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진행자는 '사회복지사'가 많았으며, 진행빈도는 '주 3회'가 가장 많았다.

노인복지관은 고령화 사회에서 늘어나고 있는 노인들의 복지서비스 욕구에 대하여 보다 포괄적인 정책적 대응을 위해 설립되었다(Kim, 2004). 이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도 치매예방에 전문화되어 있기보다, 다양한 노인들의 욕구에 맞춰져 기획이 되므로 한계가 있다. 또한 프로그램의 명칭과 더불어 프로그램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일치도에 대한 연구도 전무한 상태이다. 연구 결과에서 보여지는 프로그램 중, 두 번째로 많은 프로그램으로 '작업치료'가 시행되고 있었으며, 작업치료가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Kim (2007)의 연구 결과에서 참가자들에게 향후 수행하고 싶은 활동에 대해서 조사했을 때, 42.5%의 참가자가 원하는 활동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노인관련 시설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이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기획되고 있으며, 기획 과정에서도 타 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그대로 가져다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나타나는 결과이다. 노인들의 활동참여에 대한 동기 결여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언으로 노인들의 욕구 해결을 위한 중재를 하는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의 배치는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Kim, 2007). 연구 결과에서 프로그램 진행자 역시 노인복지관이라는 특정 목표에 맞게 사회복지사가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에서는 치매예방이라는 특정 목표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적절한지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5대 도시 치매지원센터에서 시행되고 있는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대구시', '부산시'가 다양한 치매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반면 '대전시', '광주시'는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여러 치매프로그램들 중 '인지치료', '운동치료' 프로그램에 5대 도시 모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또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진행자는 '작업치료사'

가 많았으며, 진행빈도는 '주 1회'가 가장 많았다.

치매지원센터란 지역사회 치매통합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치매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관으로,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사업, 치매조기검진, 치매 예방등록관리, 치매 치료비 지원, 치매지역 사회자원 강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5가지 사업 중 치매 예방등록 관리 사업에 속하는 인지건강 프로그램에서는 치매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Seoul Metropolitan Center for Dementia, 2015). 노인복지관과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나, '작업치료사'가 진행자로 언급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003년 3월에 참여정부가 요양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의 전 노인을 대상으로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적인 인력양성방안으로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교육 후에 활용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Jung et al., 2006).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치매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실질적 적용이 가능한 전문성을 지녀야 한다. 작업치료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치매 환자의 인지기능에 효과적이라는 Patterson (1982), Graff 등(2006, 2007)의 연구결과가 있지만 우리나라 작업치료 직무에 대한 인식이 낮은 이유(Lee et al., 2003)로, 각 기관에서 작업치료사의 역할 수행이 아직은 미비하다. 그러나 치매 환자의 전반적인 관리를 위한 작업치료사의 필요성과 전문성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치매지원센터에서의 작업치료사의 역할이 점차 요구되고 있다(Jung et al., 2013). Park 등(2015) 연구 결과에 의하면 치매지원센터 내 작업치료사가 치매지원센터를 넘어 지역사회의 인지 기능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 '운동치료' 역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노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운동을 제시할 수 있는 물리치료사 역시 치매관련 기관에서 배제되고 있다. 치매가 인지 문제라는 인식으로 운동이 등한시 되고 있으나, 인지는 운동과 더불어 함께 발달하고 있음에 물리치료사의 역할 역시 중대하리라 본다.

각 시도별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프로그램 다양성,



진행자, 진행빈도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물론, 각 기관별로 예산부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진행 횟수나, 전문가 섭외, 프로그램 완성도 등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기관의 존재 목적이 치매지원센터로서 치매예방 또는 치매 환자의 관리라면 그러한 목적을 보다 적극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구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Yang, 2016). 향후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위해서는 먼저 노인들의 욕구 파악을 한 수요조사가 선행되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시했을 경우 참여 동기 역시 향상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정확한 노인들의 인지 및 신체 기능 수준을 평가하고, 중재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프로그램 개입이 절실히 필요하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정확한 효과구명을 위해 추후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V. 결론

새 정부에서 내세운 보건의료 정책 1호는 ‘치매국가책임제’로 치매관리 패러다임을 예방, 관리, 처방, 돌봄 등의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수도권에만 몰려있는 치매지원센터를 전국 시군구에 확대 설치해 국가 치매관리의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많은 기관들에서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이며, 예방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주요 5대 광역시 노인복지관과 치매광역센터에서 시행되고 있는 치매예방프로그램을 비교 분석하였다. 노인복지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가 가장 다양한 치매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고, 여러 치매프로그램들 중 ‘인지치료’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진행자는 ‘사회복지사’가 많았으며, 진행빈도는 ‘주 3회’가 가장 많았다. 5대 도시 치매지원센터에서 시행되고 있는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대구시’, ‘부산시’가 다양한 치매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반면 ‘대전시’, ‘광주시’는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여러 치매프

로그램들 중 ‘인지치료’, ‘운동치료’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진행자는 ‘작업치료사’가 많았으며, 진행빈도는 ‘주 1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한 본 연구의 결론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치매 지원 센터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 지방에서는 프로그램 다양성이 저조하고, 운영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각 시도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이 차이는 있으나, 프로그램 내용이 치매예방을 목적으로 한 교육내용임이 검증되지 않고 있으며, 진행자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도 제한적임을 알 수 있었다. 국가정책에 부응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미 치매에 대한 이해가 확립되어 있으며, 클라이언트 중심 문제해결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으로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의 역할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 Reference

- American Occupational Therapy Association. Occupational therapy practice framework: domain and process.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2002;56(6):609-639.
- Cho H, Ko ZK. Current state of senile dementia and improvement of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for elderly peopl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2;13(12):5816-5825.
- Choi JA. A study on participation in a program for dementia prevention and early medical checkup for the elderly. Ewha Womans University. Dissertation of Master's Degree. 2007.
- Graff MJ, Bernooij-Dassen MJ, Thijssen M, et al. Community based occupational therapy for patients with dementia and their caregiver: randomised controlled trial. *The British Medical Journal*. 2006;333(7):1196-1204.
- Graff MJ, Bernooij-Dassen MJ, Thijssen M, et al. Effect of community occupational therapy on quality of life,

- mood, and health status in dementia patients and their caregivers: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The Journal of Gerontology*. 2007;62(9):1002-1009.
- Im JS. A study on the improvement welfare services for the demented elderly through analyzing the current problem. Choungju University. Dissertation of Master's Degree. 2012.
- Jung WM, Park CS, Whang YJ. A study on job competency of community-based occupational therapists : focusing on job analysis in dementia care cente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ist*. 2013;21(3):15-29.
- Kim HT. A study on the sustainable leisure policy for the aged. *Korean Society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2004;22(1):221-237.
- Kim YG. A search on the necessity of occupational therapy in 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in public health cente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ist*. 2007;15(3):13-24.
- Lee DY. Seoul dementia management project and seoul metropolitan center for dementia. *Korean Association for Geriatric Psychiatry*. 2007;11(1):8-11.
- Lee JT. The study on the program effectiveness of preventing dementia for old people.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Dissertation of Master's Degree. 2011.
- Lee KH, Kim KE, Son MO. The occupational therapist's present conditions and ways of improvement of the whole community health cente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ist*. 2003;11(2):31-42.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 conditions of paid elderly welfare facilities. [http://www.mw.go.kr/front\\_new/jb/sjb030301vw.js](http://www.mw.go.kr/front_new/jb/sjb030301vw.js) p. 2015.
- Nam SH, Moon SY, Yu JY. Long-term prospect of demographic and economic effect of population aging.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Social Affairs. 2013.
- National Statistical Office.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http://kostat.go.kr>. 2015.
- Park JS, Park SJ, Yun JY, et al. Efficacy of dementia prevention program for cognitive function, depression, and physical function in the elderly non-demented women-focused on senior citizens cente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ist*. 2015;23(3):79-96.
- Park KY. The effectiveness of interventions for individuals with dementia: a qualitative meta-analysis. *The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for the Aged and Dementia*. 2009;3(2):23-32.
- Seoul Metropolitan Center for Dementia. 2014 literature review for development of the dementia preventive program. Seoul. 2014.
- Song TG. Social support measures and social work intervention model for family caregivers with senile dementia patients. Cheongju University. Dissertation of Master's Degree. 2006.
- Sung MR, Kim SN. Stress and job satisfaction of health care workers in a dementia center.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2011;13(3):224-232.
- The Seoul Institute. Study of improvement plan and program monitoring of senior community center. <http://opengov.seoul.go.kr/scholarship/409965>. 2012.
- World Health Organizatio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 Geneva. StylusPubLLc. 2001.
- Yang MH. Current state of dance programs at Seoul center for dementia. Kyung Hee University. Dissertation of Master's Degree. 2016.
- Yu AR. The effect by dementia preventive integrated training program on cognitive function, depression and self esteem in elderly life. Ga Chun University. Dissertation of Master's Degree. 2013.